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악행품(惡行品) ②

世人無解 世人무문
不知正法 不知正법
不知正法 不知正법
不知正法 不知正법

세상 사람들 들은게 없어서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나와 얼마 살지 못하는데
어찌 악한 일을 해야 하겠는가

莫輕小惡 莫경소악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겨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지말라
물방울은 비록 작을지라도
방울 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란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

작은 것이 쌓여서 이뤄진 것

莫輕小惡 莫경소악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以爲無福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여겨
그것은 복덕이 아니라 하지 말라
물방울은 비록 작을 지라도
방울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덕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뤄진 것이다.

夫士爲行 夫士爲行
好之與惡 好之與惡
各自爲身 各自爲身
終不敗亡 終不敗亡

무릇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제각기 자신을 위해 하나니
그 과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好取之士 好取之士
自以爲可 自以爲可

沒取彼者 沒取彼者
人亦沒之 人亦沒之

베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일이 옳다 하지만
남의 것을 뽀뽀 빼앗으면
남도 내것을 모조리 앗아간다

惡不難對 惡不難對
如乳牛乳 如乳牛乳
如乳牛乳 如乳牛乳
如乳牛乳 如乳牛乳

악의 값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방금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듯이
죄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것 같다
셋 속에 묻혀있는 불치처럼

嚴笑爲惡 嚴笑爲惡
以作身行 以作身行
以作身行 以作身行
以作身行 以作身行

나쁜 짓을 우습게 여겨서
그것을 일상의 짓거리로 하다가

울부짖으며 그 과보를 받나니
행업을 따라 죄가 다가온다

作惡不覆 作惡不覆
如瓦所載 如瓦所載
如瓦所載 如瓦所載
如瓦所載 如瓦所載

저지른 악은 덮여지지 않는다
마치 병장기에 베인 것 같이
과보에 이끌려 알게 되지만
이미 악행에 떨어졌으니
뒤에 괴로움의 값을 받는것은
앞서 지은 것과 같으리라

如毒藥渣 如毒藥渣
船入海復 船入海復
船入海復 船入海復
船入海復 船入海復

마치 저 지독한 종기처럼
배가 소용돌이에 빠져든것 처럼
악행이 흘러 퍼지면
다치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龍眼

벽산스님 (태고종 승정)

말은 하기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
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무책임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과도해서 국가와 사회가 시끄럽고 국민
들이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마음이 맑고 일반 사람들이 참다운면 사
회의 어지러움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무
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려야 합
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三毒)을
놓아버려야 그곳이 부처님 세상이라고 말
씀하셨어요. 이 삼독은 탐욕 성냄 어리석
음을 말하는 것인데 중생의 착한 마음을
해롭게하는 것이 마치 독사가 사람을 해
롭게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보시고 인정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남을 사랑하며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선사 대교과 학인시절 안연 석왕사
에 갔더니 큰절 뒤 극락암에 금오스님이
계셨어요. 문안인사를 올리니 스님께서
“부처님은 성불했는데 중생들은 왜 성불
을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레
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3독을 끊어버
리셨지만 우리 중생은 3독을 못끊어서
그렇습니다”하니 “그래, 너가 경을 잘봤
구나”하시며 “선방에서 공부해야 된다”
며 대교과를 마치고 꼭 찾아오라고 말씀
하셔요. 그런데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이
라 가보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아 있
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불사선(不善) 불사악
(不善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도 생
각 말고 악도 생각말라는 뜻이지요. 즉 선
이 있으면 악이 반대되고 악이 있으면
선이 반대되므로 아무런 생각도 말라는
것입니다. 선(善)과 악(惡)을 가르면 관
(觀)이 생겨서 공부하는데 가장 큰 마
(魔)가 돼요. 항상 맑고 깨끗한 속에서
정갈함을 유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가져
야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세상사람 모두가 부처
님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있
습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애
에서 선행을 많이 쌓고 마음을 닦아서 자
성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
러 오는 사람들에게 <금강경> 독송을 권
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佛) 법
(法) 승(僧) 삼보가 함께하는 곳이니 생
활속에서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불교에 귀

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관세음정근 21일 기
도후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인연의 고리를 풀고 싶어졌던 게지요. 14
세에 부안 내소사로 출가했습니다. 해안
(海眼)스님의 문하에 있으면서 해안문중
에 따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수행의 일과였습니다. 평생 <금강경>속
에서 일상생활화 하시면서 사셨던 은사
스님께서는 늘 “금강경을 항상 독송하여
달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
니다. 출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습
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만약 선남
자 선여인이 <금강경> 가운데 사구계만
가져 남을 위하여 일러줄 지라도 복덕이
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보시보다 법보시의 공덕이 크다고

1922년 전북 정읍생
1935년 부안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0년 백양사 통도사 불선사
유점사 감원수로
1952년 부안 월명암 선원 3하안
거성만
1954년 부안 내소사주지
1958년 전북교구 총무원장 역임
1974년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역임
1989년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역임
· 현재 정읍 다천사 주석

보는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듣는소리 없으면 시비 없다
분별시비 놓고 마음을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상(相)이 있
고 법은 상이 없으므로 상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져버리는 잠깐이라는 것이
예요. 그런데 법은 불생불멸이므로 영원
하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이 잠깐이
라도 고요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환호미
래와 같이 많은 칠보로 탐을 쌓은 것보
다 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보배탐은 무너
져 먼지로 화하지만 한생각 깨끗한 마음
의 정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구계만 설하는 곳이라도 그곳은 부처
님의 사리를 모신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절과 같이 모든 세간의 하늘이며 사람이



며 이수라들이 와서 공양하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정부를 수지독송한
다면 어찌되었습니까. 이는 가장 잘사는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대중에서 올때는 한 물건
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어서 호흡이 떨
어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
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업을 지었으면 선
업이 그림자같이 따르고 악한 짓을 했으
면 악한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무순임을 하던지 그 마
음이 청백(淸白)하고 백천일월(百千日月)
과 같이 밝은 그 자리 어디든지 애착

(愛着)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애착을 붙이면 죽어서도 가장
되는 사람은 마누라를 찾아다니고 또 부
인네는 가장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또 자식
에게 애착이 있으면 죽어서 자식을 찾아다
니게 되는 것입니다. 일가에 전전공공하
며 살던 어느 목수가 죽어서는 대목이
하는 일거리를 찾아다니 담뎂다. 귀신이
일거리를 찾아다니니 무슨일이 있었습니
까. 그래서 자기의 부인 꿈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일하려고 일거리를 아무리
찾아다니도 일거리가 없다”고 한탄하더
랍니다. 이렇듯 애착이 있으면 죽어서 갈
데도 못가고 무주공산을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때 길을 가다가 바닷
물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이 연
유를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
이 과거생에서 그 부모들과의 애별리고
(愛別離苦)로 흘린눈물은 저 바다물보다
도 더 많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겠느냐”
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중생들이 나고 죽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
장)이 흑염지(검은계)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
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
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
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
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
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
화정을 현대화된 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
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
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
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
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병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
며 병고에 시달리
는 불자들이 도와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
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가 입증된 '세사이슬' 성분 대량
추출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